경제혁신

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 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7년 3월 8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8(수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3. 7(화)	담당부서	전력산업과
담당과장	김성열 과장(044-203-5240)	담 당 자	안홍상 팀 장(044-203-5241) 임기홍 사무관(044-203-5254)

◇ 우태희 산업부 차관, 나주 전력공기업 및 에너지신산업 현장 방문 ◇

ㅇ 꽃샘추위 대비 수급안정 노력 강조, 신재생 확산에 대비한 전력계통 운영 주문
ㅇ 에너지신산업 지역 기업체도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

□ **우태희 산업부 차관**은 **3. 8.(수)** 나주지역 **전력거래소와** 지능형 계량기(AMI)업체**를 방문**해, 전력수급 동향과 에너지신산업 현장을 점검했다.

○ 전력거래소에서는 겨울철 전력수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**봄철 수급상황을 점검하고, 향후 전력수급과 계통운영 방향을 논의했다.**

○ 또한, 에너지신산업 핵심분야인 **지능형 계량기*(AMI) 전문업체인 N사를 방문**해 **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, 임직원을 격려**했다.

* ICT 기술을 바탕으로 공급자-소비자 간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신산업 핵심 요소

< 방문 개요 >

❶ 전력거래소
○ 일시·장소 : '17.3.8일(수) 11:00 ~ 14:00, 전력거래소·한전 등
○ 주요참석자 : 산업부 2차관, 전력거래소 이사장, 한전KPS·KDN 사장 등
○ 논의내용 : ① 전력수급 동향 및 봄철 전망, ② 신재생 확산 등 미래 환경변화 대비 전력수급·계통운영 개선 필요성, ③ 에너지신산업 기업체 애로사항 청취 등

❷ 스마트미터(AMI) 업체(N사)
○ 일시·장소 : '17.3.8일(수) 13:30 ~ 14:00, N社
○ 주요참석자 : 산업부 2차관, 업체 관계자 등
○ 논의내용 : ① 애로 사항 청취, ② 정부정책을 활용한 기술개발·혁신 당부

< 전력거래소·한전 방문 >

□ **(동계수급)** 먼저, 우차관은 지난 겨울 가장 높은 동계 전력수요에도 **안정적인 전력수급**을 달성한 유관기관의 노고를 격려했다.

○ 올 겨울은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전력수요를 유지했으나, 1월 중순 강추위로 동절기 최대전력(8,366만kW) 기록했다.

* 월평균기온/평년기온(℃) : ('16.11) 7.8/7.6, ('16.12) 3.1/1.5, ('17.1) 0.1/-1
* 올겨울 피크실적(1.23) : (수요) 8,366만kW, (공급) 9,544만kW, (예비력) 1,178만kW(14.1%)
* 역대 동계피크(만kW) : ('12) 7,652 → ('13) 7,729 → ('14) 8,015 → ('15) 8,297

□ **(봄철수급)** 우 차관은 **봄철 수급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**하고 있으나, 여름철 전력 최고점(peak)에 대비 **많은 발전소가 정비에 들어가는 만큼 방심하지 말고 수급관리**를 **철저**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.

○ 특히, 3월 꽃샘추위·5월 이른 더위 등 이상기후로 인한 수요급증과 전력설비 고장 등 공급차질에 대비해 평상시 철저한 점검을 강조했다.

□ **(미래준비)** 신재생·전기차·에너지저장장치 확산 등 **미래 환경변화에 대비 전력수급과 계통 안정운영을 위해 선도적인 준비를 주문했다.**

○ 신재생 등 분산전원의 증가로 인한 수요예측 불확실성과 공급 변동성 심화에 대비 중장기적인 수급·계통의 안정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.

□ **(전문성강화) 전력거래소는** 전력계통·시장 운영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**전력산업의 컨트롤센터인 만큼 고도의 전문성**을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.

○ 세계적 조류와 선진각국의 제도운영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운영에 집중적인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.

□ **(경기활성화)** 우차관은 전력거래소에 이어서 한전을 방문해 **에너지신산업 투자현황과 계획 등을 점검했다.**

○ 한전 등 전력그룹사가 연초 발표한 고용과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가능한 조기 집행해 경기 활성화와 에너지신산업 확산에 나서 줄 것을 당부

< 지능형 계량기(AMI) 업체 방문 >

□ **(업계 격려)** 우차관은 에너지신산업의 본격적 확산을 위해서는 지능형 계량기(AMI) 확산이 필수하며 **N사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.**

□ **(정책 지원)** 우차관은 스마트미터 등을 중심으로 **에너지신산업 지원 정책을 소개**하면서 업체의 **에너지신산업 기술개발과 적극적 수출시장 개척**을 주문했다.

○ **(지원정책)** 올해 **450만호** 지능형 계량기(AMI) **추가보급**을 포함해, **'20년까지** 1.4조 원을 투자해 **2,200만호에 보급하기로 했다.**

- 지능형 계량기(AMI)를 활용한 수요관리사업 등 비즈니스 창출, 소비자 정보제공, 사물인터넷(IoT)기술과 연계한 복합서비스 개발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.

○ **(당부사항) 국내 에너지신산업 기업**들이 **현실에 안주하지 않고,** 기술개발, 인력양성, 전략적 해외진출, 투자 등을 통해 **지속적으로 혁신**해 나가길 당부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안홍상팀장(☎ 044-203-5241), 임기홍 사무관(☎ 044-203-525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